



남원·사천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사천시와 남원시 의용소방대는 지난 12일 사천시 일원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열고 상호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두 지역 의용소방대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이용해 전망대에서 남해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교류했으며, 행사 중에는 상호 기념품 교환과 함께 각 시에 10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사천과 남원 의용소방대의 지속적인 교류는 영·호남 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화합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하반기 전직원 소방안전교육 진행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화재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법 △화재 대피 절차 등을 직접 실습하며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한 도동동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용지면,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추진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협의회(회장 이선)가 최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 일원에서 산업시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 시찰은 선진 지역의 우수 행정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순천과 여수의 지역 관광지를 방문해 선진 행정 사례 탐방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LX, 4년 내 경영 정상화 목표로 ‘총력전’

비용 절감·조직 효율화·매출 확대 등 전사적 혁신 추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전사적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2022년부터 영업적자가 확대되자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실제 영업적자는 2022년 -164억원, 2023년 -716억원, 2024년 -822억원으로 심화됐다.

공사는 긴축예산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임원 임금 20%, 관리자 5~10% 반납 등 인건비 절감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류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운영 인력도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희망·명예퇴직 104명, 무급휴직 53명을 시행하고, 소규모 본부와 지사를 통합(본부 11→4개, 지사 156→145개)해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마련했다.

공사는 영업개발처 신설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등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어명소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LH,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 기반 융·복합 사업을 제안해 286억 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지적측량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환경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822억원의 영업적자를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줄이고, 2028년 영업 흑자를 달성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했다.

어명소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대응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신사업 발굴 등 전사적 노력을 바탕으로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현실화하겠다는 LX공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오상근 기자



남원산동면 지사협,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 일정 공유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복지사업 현안과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특화 복지사업으로 나눔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 수혜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면서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 구황작물을 직접 파종, 재배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제공하여 안전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 바 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하반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수확과 햅쌀 구매 및 배부에 대한 세부 일정을 공유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새로운 복지특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앞으로도 함께하는 산동면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파출소, 어르신 대상 수확철 범죄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수파출소는 15일, 수확철을 맞아 범안 금전마를 등 관내 마을회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수확철 범죄(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각종 범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수파출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절도사례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절피해 발생에 경각심을 갖도록 마을회관에 설치된 앱프방송으로 농산물 절도 예방법을 홍보하였다.

또한 수확철 각종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작동시 사고예방요령, 노인 일자리 작업 시 교통사고예방 요령,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용방법 등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한 설명했다.

박진수 장수파출소장은 “수확철이 시작됨에따라 농산물 절도 및 교통사고발생을 대비해 선제적 홍보활동을 내달 31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며, “장수파출소는 수확철 농가보호 및 어르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시흥동 지사협, 세 번째 천사무료급식소 봉사

김제시 시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호길)는 15일 김제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올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펼치며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박정완 시흥동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배식 및 설거지를 맡아 급식소 운영을 도왔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최호길 위원장은 “세 번째 봉사에서 어르신들과 더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나눔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발대식

인구감소·기후변화·식량안보 문제 등 적극대응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15일,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과 함께 조합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전 결산을 위한 연례 감축추진 결의와 더불어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남원시 조합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심천심운동을 적극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심천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농업인이 존중받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업·농촌 가치공감확산 △농업가치 증대 △농촌공간 가치증대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추진이 결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도농교류 확대 △우



수 농축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샐러·일터·쉼터로서의 농촌가치 재창출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오영석 시지부장은 “농심천심운동은 신도불이·농도불이 정신을 잇는 새로운 가치운동이며,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